

# 서구, 전국 최초 18개 동별 합창단 운영 ‘눈길’

## 주민 자발적 참여...자치 새동력 주민들 의기투합 최고무대 선사

광주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전국 최초 18개 동별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음악을 통한 시민 간 화합과 소통을 꾀하고 있다. 서구 마을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 단원에 이르기까지 ‘하모니’를 완성함으로써 마을자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서구는 지난 16일 서빛마루문화예술회

관에서 ‘서구 하모니 마을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8개 동 마을합창단이 참여해 자유곡 2곡씩을 선보였다.

서구 마을합창단은 민선8기 들어 동 중심 생활정부 실현과 주민들의 마을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보자며 논의하는 과정에서 ‘음악이 흐르는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합창단을 구성했고 지난 3월부터 정기모임과 연습을 통해 소통하고 화합을 도모하면서 마을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었다. 피아노학원 원장, 교회 반주자,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지휘자와 반주자를 자처하고 나섰으며 마침내 아름다운 하모니를 완성했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단원들은 “학창 시절 친구들 앞에서 곧잘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오늘 무대에서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꼈다”, “노래 부르는 것 자체가 최고의 힐링”, “페스티벌을 위해 드레스 맞추면서 30년 전 결혼식만큼 설렘”, “나이 들어서도 전진하는 나 자신이 대견스럽다”며 감동과 기쁨을 전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처음 마을합창단 제안이 나왔을 때 시도해 보지 않은 일이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기투합이 오늘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냈다”며 “민선8기 변화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때 성과를 거두고 서구발전 동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광주시 서구 마을합창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마을합창단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주비 기자

## 재정 집행률 92.9% 전국 최고 광주 북구 지난해

광주 북구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북구는 나라살림연구소의 ‘2022년도 전국 지자체 예산 결산서 분석’ 결과 재정 집행률이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높은 92.9%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북구 예산은 1조1686억원에 2021년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 예산 현액 1조2221억원 중 1조1359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재정 집행률이 90%를 넘는 것.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부문에서 집행 목표액 1715억 원 대비 826억 원을 넘긴 2541억 원을 집행, 코로나19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앞장섰다.

북구는 재정 이월률 역시 지난해 전국 지자체 평균 이월률(7.7%)보다 낮은 3.8%로 집계됐다. 계획된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순환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북구는 분석했다.

지난 2020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연 북구는 올해까지 4년 연속 1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집행 부진 요인 분석, 대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에 나섰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예산은 주민에게 공개되는 투명한 정보이자 계획인 만큼 주민에 신뢰받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상·하반기 진행하는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에서 지난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차례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정성현 기자

## 라이프치히 국제교류전 광주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광주 광산구는 오는 20일 오후 5시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2023 광주-라이프치히 국제교류전 ‘광주 아리랑’ 전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포럼과 독일 포템가 컨템포러리 아트, 소촌아트팩토리가 함께 마련했다.

독일 라이프치히는 광주시 우호도시로 2000년대 초반 ‘라이프치히 화파’가 탄생한 유럽 동부권 문화예술의 중심지다.

‘광주아리랑’은 올해 43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다. 광주 오월정신을 주제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해온 홍성민·허달용·리일천·김설아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 기획은 장경화 독립큐레이터, 김승호 동아대 교수 등 미술 분야 전문가가 맡았다. 전시는 2024년 1월 28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에 문의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

## 광산구 주거복지문화대상 수상 취약계층 주거안정 선도

광주 광산구는 지난 14일 주거복지문화재단 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제6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 등을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한 행사다.

광산구는 특수시책 발굴·추진, 지속적인 주거급여 홍보로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뒷받침하는 등 주거복지혁신을 선도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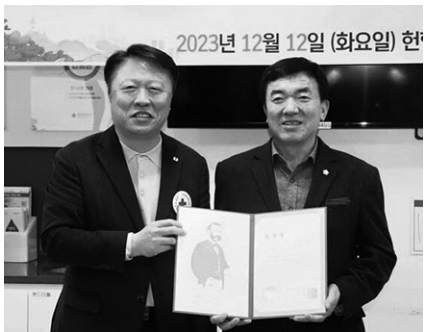
광산구는 재난·실직·가정폭력 등 이유로 주거지를 상실한 위기가구에 단기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광산형 징검다리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나, 기존 복지제도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 대상자가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집 정리, 주택 개보수 사업과 더불어 의료, 식사, 이동, 가사, 일시보호 등 민간·공공 돌봄 체계 구축으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주거안정망이 강화되도록 광산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 최기영 북구의원 혈액사업 유공자 수상



광주 북구의회는 최기영 북구의원(두암1·2·3동, 풍향, 문화, 석곡동)이 지난 12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서 2023년 혈액사업유공자로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헌혈홍보위원으로 활동하는 최 의원은 혈액사업으로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등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최근에는 ‘광주 북구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 조례’를 개정하는 등 헌혈문화 활성화를 꾀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 ‘헌혈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

정성현 기자



‘동구 옛 사진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지혜의 ‘옛 추억이 담긴 사라진 동구의 모습(1974년)’.

광주 동구 제공

## ‘동구 옛 사진 공모전’ 수상작 8점 선정·공개

### 강지혜·박태홍·신인용씨 등 수상

광주 동구는 ‘동구 옛 사진 공모전’ 수상작 8점을 선정하고 온라인기록관을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전은 인문도시 기록화 사업 일환으로 지난달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했다.

최우수상은 강지혜 씨의 ‘옛 추억이 담

긴 사라진 동구의 모습(1974년)’이 선정됐다. 과거 계림동 종합서적과 대성서림이 들어선 골목의 풍경이 담겼다. 현재 사라진 옛 서점의 모습이 담긴 사진 기록물로 당시 계림동 일대 풍경뿐 아니라 주민 생활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 의의와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상은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을 담은 박태홍 씨의 ‘격정스런 시민들’

과 신인용 씨의 ‘3차 증축 직전의 전일빌딩’이 각각 선정됐다. 그 외 5점 장려상까지 8점을 선정하고 ‘동구 인문도시 온라인기록관’을 통해 주민들에 공개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 모두 동구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민속자료로 지역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 서구, 체력인증사업 2년 연속 최우수상

### 전국71곳 국민체력100 평가 체력증진·운동평가 등 호평

광주 서구체력인증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으로 진행된 ‘2023년 국민체력100 사업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전국 71개소 체력인증센터 대상으로 △지역자원 인프라 △운영활동 △성과 △사후관리 총 4개 분야 12개 지표에 대해 총 6개소(최우수 1·우수 2·장려3)를 선정했다.

광주서구체력인증센터는 2020년 개소 이후 서구보건소 타 사업 및 건강·의료분야, 교육기관, 공공·민간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6729명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 체력증진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데



광주 서구체력인증센터가 ‘국민체력100 사업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주 서구 제공

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서구는 민·관 협약기관 및 지역자원 54개 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체력증진 및 운동 평가, 대상자 특성에 맞는 체력증진 교실 운영(14기 667명)·특화사업인 건

강측정 및 상담(1463명) 등 프로그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과학적인 체력관리 프로그램과 개인별 체력진단 및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국민체력100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체력인증센터를 대상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조단기 고령사회 진입 및 국민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 약화 등 사회간접비용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체력관리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홍보와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의 체력·건강증진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